

## 현재와 과거가 맺고 있는 질긴 인연의 끈

진보량의 《중국유명사》를 읽고

하창수 | 소설가

“유명은 건달을 말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깡패나 양아치로 표현해도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이나 건달이나 깡패나 하는 부류들의 삶의 행태란 것이 하나같이 남을 속이고, 사기 치고, 싸움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금이 다르지 않고, 적어도 중한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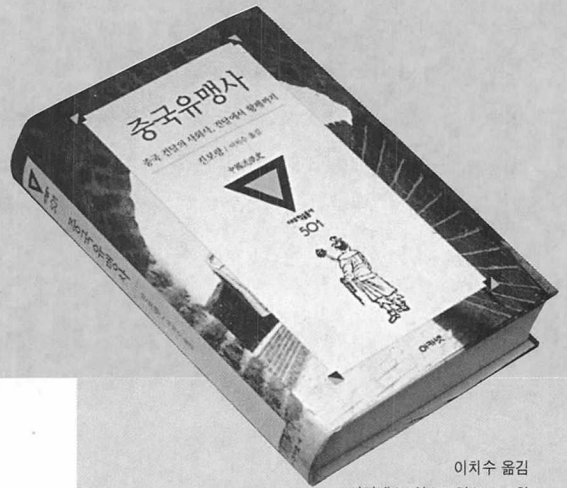
《중국유명사》(아카넷)는 저를 세 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 첫번째 놀라움은 우편으로 배달돼온 770쪽 짜리 두툼한 볼륨의 이 책 서문을 읽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내 손에?” 하는 중얼거림이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몇 년 전에 구상만 해놓고 꼭 한 종류의 자료만을 구하지 못해서 쓰기를 떨쳐감치 밀쳐버린 장편소설이 있었는데, 그때 백방으로 구했으나 얻지 못한 것이 바로 ‘건달의 사료(史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유명(流氓)이란 것이 바로 건달을 지칭하는 것이고, 비록 중국의 것이지만 이 책은 그 건달의 시원에서 말현까지를 두르르 꿰고 있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번째 놀라움은 실은 부러움이라 해야 온당합니다. 그 부러움의 대상은 방대한 ‘건달사’와 하찮게 넘겨도 무방할 사외적(史外的) 자료에 대한 학자의 집요한 추적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자료들이 있고, 이런 자료가 있다면 오늘의 사학자 가운데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 제가 역사에 워낙 문외한이라 이이화 선생 한분의 이름만 떠오르는군요. 하기가 역사 자료와 역사 외적 자료의 구분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 유명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이탈리아의 작가 피란델로

(Luigi Pirandello, 1867~1936)의 작품을 인용한 명답이 있습니다. “A fact is like a sack - it won't stand up till you've put something in it(사실이란 자루와 같다. 거기에다 뭔가를 넣기 전에는 서지 않는다).” 물론 이 책은 지은이 진보량의 자의가 역사적 사실을 만든 결과물일 리는 없습니다. 여하튼 세계 이 책은 주눅이 들도록 방대한 건달사였고, 사외적 자료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역사적 사실을 담보하는가를 기가 막히도록 정확히 설과해낸 역저(力著)였습니다. 거기에 부러움과 놀라움이 있었던 거죠.

세번째이자 마지막 놀라움은 과거와 현재가 맺고 있는 질긴 인연의 끈을 이 책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죠. 유명은 말했다시피 건달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깡패나 양아치로 표현해도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이나 건달이나 깡패나 하는 부류들의 삶의 행태란 것이 하나같이 남을 속이고, 사기 치고, 싸움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금(古今)이 다르지 않고, 적어도 중한(中韓)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건달의 역사를 읽어나가면서 우습고도 두려웠던 것은 건달이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건달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정치·경제·군사·문화생활 등 제반 영역에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20세기를 넘어선 지금의 상황에 대한 묘사로도 쓰일 수 있



이치수 옮김  
아카넷/A5신/770면/30,000원

는 것입니다. 중국의 삼합회(三合會)나, 일본의 야쿠자나, 우리의 이른바 ‘조직’이나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바로 정치·경제·군사·문화 전반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보스가 결혼을 하면 국회의원과 군 장성과 종교계 지도자와 연예인들이 하객으로 참석하질 않습니까. 이 우스꽝스러우면서 두려운 현상의 역사가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중국 속담에 “같은 쌀로 백 가지 사람을 키워 낸다(一樣米養出百樣人)”는 게 있습니다. 같은 이슬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는 말이죠. 건달도 건달 나름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 속담을 꺼냈습니다. 이 책에 그 ‘나름’에 속하는 건달이 나옵니다. 그를 협객(俠客)이라 부르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이 건달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한을 세운 유방이나 명 태조였던 주원장의 근본이 ‘건달’이었다는 건 어찌하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왕조(=시대)마다 그때의 건달이 건재했고, 오늘에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역사의 필연적 존재들이라면, 남을 빌어야만 자신을 살 수 있는 그들의 삶이 언젠가는 가치롭게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건달 아닌 삶이 그렇듯 말이죠. 이 책에 그 해답이 있는 듯 보입니다.●